

<붙임>

제26차 런던협약 당사국회의 참가결과

1. 회의 개요

□ 기간 및 장소

- 기간 : 2004.11.1 ~ 11.5(5일간)
- 장소 : 영국 런던, 국제해사기구(IMO) 본부 회의장

□ 참가자

- 33개 런던협약당사국 대표, 12개 비당사국, IAEA 등 UN기구 및 정부간기구, IAPH 등 비 정부간기구 대표 등 150여명

□ 우리나라 대표단 (7명)

- 수석대표 : 주영 해양관 윤학배
- 대 표 :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수산주사 백현태
환경부 지구환경(담) 행정주사 이상준
해양경찰청 감시과 화공주사보 현충국
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홍기훈외 2인
- 읍 저 버 : (주)조양 대표이사 손대협

□ 주요 의제

- '72 런던협약과 '96 의정서 현황
- 런던협약 해석
- 신 체약국 홍보 등

2. 회의 결과

□ '72런던협약과 '96의정서 현황

○ 현황

- 런던협약 가입 및 비준국 : 84개국('04.11.1 현재)
 - 우리나라는 '93.12.21 가입, '94.1.20 발효
- '96의정서 협약 가입 및 비준국 수 : 21개국('04.11.1 기준)
 - ※ 앙골라, 호주, 캐나다, 덴마크, 이집트, 프랑스, 조지아, 독일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남아공, 키츠네비스, 스페인, 스웨덴, 스위스, 통가, 트리니다드토바고, 영국, 바누아투
 - (협약당사국 15개국 포함 총 26개국이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)

○ 의장이 각국들에게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

- 2005년에 7개국, 2006년에 2개국, 2007년에 4개국이 가입 예정임을 표명
 - 2005년에 가입 예상 국가(7개국) : 나이지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이란, 콩고공화국, 핀란드, 이탈리아
 - 2006년내 가입 예상 국가(2개국) : 러시아, 미국
 - 2007년내 가입 예상 국가(4개국) : 일본, 중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

<우리나라 발언내용>

- 대한민국은 현재 의정서에 대하여 국내외 조사 검토 단계에 있으며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통해 국내수용준비가 완료되면 가까운 장래에 가입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

○ '96 의정서 비준현황 : 총 21개 서명국, 비준 및 가입국 21개국

- ※ 2005년 7개국 이상 → 2005년 발효 예상

□ 런던협약 해석

○ 산업폐기물

- 기후변화 협약(UNFCCC)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저장을 권장하나, 현재의 런던협약에서는 해양 저장을 금지하고 있음
- 작업반을 구성하여 법적 성격을 검토
 - 작업반에서 이산화탄소의 격리에 따른 환경 위험과 혜택을 과학그룹이 일차적으로 검토하도록 총회에 건의하고, 이산화탄소 격리에 대한 신규 혹은 추가적 규제 필요성은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
-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차기 과학그룹회의가 시작되기전 (2005.5.20) 이산화탄소 격리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기 함 (영국이 비용 등 후원)
- 기타 선박의 정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허용 조항에 대한 검토 및 침몰 선박의 관리에 대한 사례 보고가 있었음

□ 향후 신체약국 홍보

○ 런던협약 홍보 강화

- 런던협약 홍보를 위해 양자 협력 및 다자기구간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
- 런던협약 웹사이트
 -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최근 11개월 동안 160만건의 방문이 있음을 소개하고 미국이 운영재원을 2006년말까지 부담하기로 함
 - 그외 런던협약 홍보책자가 작성되어 해당 회의에 널리 활용할 것을 권장

<우리나라 발언내용>

- 우리나라는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(UNESCAP)의 아태환경장관회의(2005.3.24~3.29) 개최를 계기로 런던협약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언하고 사무국이 UNESCAP 사무국에 필요한 절차와 단계를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함

3. 회의 평가 및 향후 대책

□ 회의평가

- 금번 회의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, 해양경찰청 등 정부대표와 해양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핵심의제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회의 전체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, 참가국 중 미국, 영국, 캐나다, 스페인, 독일, 등이 당사국회의를 주도하였음

□ 향후대책

- '05년도에 「'96의정서」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준비작업 필요
 - 현재('04.11.1.) 까지 21개국이 '96의정서에 가입하고
 - 본 회의에서 7개국이 2005년 내로 가입 의사를 확실히 표명함에 따라 2005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
 - 1996의정서 준수절차 및 기구 설립에 관한 세부절차 등이 차기 당사국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아국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
 - 우리나라도 2005년 발효에 대비한 법령개정, 국내 수용체제 구축 및 이행방안 마련 등 사전준비 작업이 필요
- 런던협약 해석에 대한 구체적 검토 필요(해수부)
 - 침몰선박 관리 실태 문제도 향후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국의 폐선을 이용한 인공어초 조성문제도 논의대상이 될 수

- 있으므로 국내연안의 인공어초 현황 파악 등 대비가 필요할 것임
- 해양지질구조에 이산화탄소를 저장 격리하는 방안에 대한 아국의 입장 정리 필요

○ 런던협약 홍보 강화

-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아·태환경장관 회의시, 런던협약이 소개(홍보자료 배포 등)될 수 있도록 협조(환경부)